

톨스토이는 삶의 무의미로부터 어떻게 의미탐색을 해나갔는가?

- 『참회록』의 자기성찰에 드러난 ‘철학적 숙고’를 중심으로 -

노성숙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 철학상담전공 · 정교수)*

- I. 들어가는 말: 삶의 무의미는 과연 어떤 병인가?
- II. 톨스토이가 처한 삶의 총체적 위기의 현상과 그 극복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제한성
 1. 삶의 ‘무의미’라는 총체적 위기의 현상
 2. 삶의 무의미병 극복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제한성
- III. 이성과 신앙의 변증법적 사유와 주체적 실천을 통한 삶의 의미탐색
 1. 이성과 신앙, 유한과 무한의 사이에 놓인 ‘모순을 사유하기’
 2. 이성적 논증을 넘어서서 ‘참된’ 신앙을 ‘주체적으로 실천’하기
- IV. ‘역동적 존재’의 통합된 경험을 통한 치유와 ‘철학적 숙고’의 개방성
 1. ‘역동적 존재’의 통합된 경험을 통한 치유
 2. 신앙적 지식에 대한 이성의 한계 자각과 ‘철학적 숙고’의 개방성
- V. 맺음말

* philosophin@naver.com

I. 들어가는 말: 삶의 무의미는 과연 어떤 병인가?

톨스토이는 50세 즈음 아주 지독한 내면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는 작가로서 열심히 글을 썼고, 농부로서 농사일도 부지런히 했으며,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별다른 문제 없이 꾸렸다. 그는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모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즉, 작가로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부를 쌓았으며, 행복에 도달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톨스토이에게 자살 충동을 몰고 온 절체절명의 대위기가 닥쳐왔던 것일까?

그가 겪은 위기는 ‘50’이라는 나이가 보여주듯이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고 치열하게 살아온 다음, 중년기에 겪는 ‘총체적인 의미의 위기’이자 청소년기와는 또 다른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프로이트를 위시하여 현대 사회에 여러 갈래의 수많은 심리치료는 소위 ‘일’과 ‘사랑’에서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들의 실패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일과 사랑에서 성공했음에도 정신적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만일 오늘날 우리가 그와 유사하게 중년기 즈음 삶의 총체적 위기이자 정체성의 위기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심리치료의 도움을 받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그처럼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위기, 일과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강력한 고통을 주는 ‘무의미’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톨스토이가 직면한 정신적 대위기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찬찬히 살펴본 뒤, 그가 중대한 ‘병’이라고 자칭한 바 있는 ‘삶의

무의미'로부터 어떻게 자기성찰을 통해서 '치유'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병이 지닌 독특한 양상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 병이 제기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삶의 구체적인 대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에 걸친 근원적인 목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해답이 제반 심리치료의 '병리학적' 처방으로부터 쉽게 얻어질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삶의 의미'를 '신'에 두고 '신앙'을 통해 해답으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치료가 종료될 수도 없다. 더욱이 이 병이 심각한 이유는 방치하게 될 경우, 삶의 모든 의미를 잃은 상태에서 자살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무의미병'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고자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면의 갈등과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는지에 대해 추체험(追體驗)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비록 개인마다 삶의 지독한 무의미에 빠지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겠지만, 유독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인간'으로서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조건', 즉 '실존적 한계'의 철학적 경험¹⁾을 다룬다. 따라서 톨스토이가 겪은 '삶의 무

1) 정신의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 알롭은 바로 이 부분을 '실존적 요인들(existential factors)'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우리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 존재 속에 홀로 내던져진 고립감 그리고 본래 의미가 없는 우주 속에 내던져진 불행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I. Yalom & M. Leszcz,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5판』, 최해림 · 장성숙 옮김, 하나의학사. 2008, p. 118)을 말한다. 나아가 그는 '실존적 심리치료(existential psychotherapy)'를 제창했는데, 그의 심리치료는 '개인의 실존에 뿌리내리고 있는 관심들에 초점을 둔 치료에 대한 역동적 접근'(I. D. Yalom, Existential Psychotherapy, Basic Books, p. 5)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적인' 정신역동과 달리 '실존적' 정신역동을 강조하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관심으로서의 실존적 범주에 '죽음', '자유', '소외', '무의미'라는 네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롭의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실존적 인간이해와 철학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

의미'에 대한 고백이 매우 개별적인 내면의 독백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톨스토이와 같은 중년기의 현대인이 겪고 있는 의미 상실로부터 '인간의 조건' 및 '한계상황'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를 극복하려는 철학적 '자기성찰'의 태도를 매우 잘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톨스토이가 겪은 '무의미병'의 양상을 그의 자서전적 서술이 돋보이는 『참회록』²⁾ 텍스트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II장에서는 톨스토이가 처한 총체적인 삶의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노력이 기존의 연구에서 '철학'이나 '종교'나의 이분법적인 배타성을 통해서 어떻게 환원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철학적'으로 해석되더라도 어떤 제한점을 지니고 논의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III장에서는 톨스토이의 의미탐색이 철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의 '변증법적' 사유와 '주체적' 실천에 놓인 이중적인 강조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전의 연구나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참회록』 텍스트를 전거로 해서 그 핵심내용을 상세히 다룰 것이다. 끝으로 IV장에서는 톨스토이가 무의미병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시도했던 자기성찰의 과정에서 드러난 '역동적 존재'의 경험과 '철학적 숙고'가 지닌 치유적 함축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톨스토이가 삶의 무의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행한 지속적인 자기성찰의 과정에서 '역동적인 존재'로서의 신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전의 균열을 통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치유에 이르는지, 그리고 나서 '이성과 신앙 사이'의 갈등을 어떤 태도로 계속 사유해나가는지 초점화함으로써, 톨스토이가 과연 어떻게 삶의 무의미병에서

래 참조, 노성숙, 『심리치료와 철학상담』, 학지사, 2021, 98~105쪽.

2) T. J. Tolstoi, 『참회록』,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2022, 26~27쪽. (이하 『참회록』으로 약칭)

지속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II. 톨스토이가 처한 삶의 총체적 위기의 현상과 그 극복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제한성

1. 삶의 ‘무의미’라는 총체적 위기의 현상

톨스토이가 가장 큰 내면의 위기를 겪은 것은 50세 전후 인생의 중년기였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최대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으면서 열정적으로 글을 썼다. 특히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를 통해 세계적인 작가로 등극하면서 명성을 얻었고, 그와 함께 금전적인 보수를 챙기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졌는데, 이는 마음속에 있던 ‘삶의 의미’에 회의를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이상한 내면의 상태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라고 여겼다가,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³⁾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통틀어서 해당하는 것이어서 톨스토이가 그 질문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한 뚜렷한 답도 보이지 않았고, 그야말로 그 질문 자체가 매우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그렇다고 그는 이처럼

3)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들은 엄청난 불안, 슬픔, 당혹감과 같은 깊고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신 병리적인 문제는 아니다. 때로는 이러한 갈등은 진실로 실존적 문제이다.”(B. Minjuskovic,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에 관한 성찰, Rahav, L. & Tillmans, M. V.,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정재원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3, 131쪽)

‘삶이 멈춰버린 순간’, ‘삶의 공허’⁴⁾에 휩싸여 정지된 데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만도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순간이 자주 반복될 뿐 아니라 자신에게서 떼어낼 수 없도록 존재의 근원적 차원에 깊이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침내 톨스토이는 이 불행한 순간의 강도가 점차 더 커지면서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스스로 ‘병’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 병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톨스토이는 삶이 마치 멈추어 버리는 순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처음에는 뭔가 “어리석고 단순하고 유치한” 것이라고 넘기려 했다가 오히려 직면하기로 맘을 먹었다. 그러자 그 질문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이자 도저히 스스로 답을 할 수 없는 난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삶의 무의미’를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서 톨스토이가 경험한 그 ‘무의미병’의 양상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자면, 우리는 그것이 곧 파멸을 의미하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저 하루하루 살고 견고 또 걸어 심연에 도달했는데 내 앞에 파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똑똑히 본 듯했다. 그 자리에서 멈출 수도 없었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내 앞에 삶과 행복이라는 기만, 진짜 고통과 진짜 죽음, 즉 완전한 절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지 않겠다고 눈을 가릴 수

4) 프랭클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톨스토이와 같은 ‘삶의 무의미’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를 “내적 공허감(inner void)” 혹은 “실존적 공허(existential vacuum)”(Frankl, V. E.,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Meridian, 1988, 83쪽)라고 명명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의미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로고테라피’를 제창했다.

도 없었다.⁵⁾

이러한 ‘심연’에 닿은 톨스토이는 이제 그동안의 행복은 기만이고, 오히려 ‘삶의 무의미’와 ‘죽음’만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실존적 심연’에 직면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니체가 전한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사람은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를 잇는 밧줄, 심연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건너가는 과정, 뒤돌아보는 것,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위험하며 멈춰 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⁶⁾

여기서 니체는 인간을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에 걸쳐 있는 밧줄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밧줄이 심연 위에 드리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걷고 있는 인간적 삶의 긴박함은 그야말로 발아래 심연으로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서 더욱 배가 된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토록 아찔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짐승도 신도 아닌 그 중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은 톨스토이가 성격이 예민해서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라면 누구나 지닌 실존적 제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톨스토이는 자신이 처한 위기를 동양의 옛 우화도

5) 『참회록』, 31쪽.

6) F. Nietzsche,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7, 20쪽.

매우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맹수와 마주친 나그네의 이야기인데, 이는 원래 불교 경전에서 전해진 ‘안수정등(岸樹井藤)’의 비유에서 나온 것이다. 경전에 나온 원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요약하자면, 나그네는 크고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기다가 우물에 뛰어들어 몸을 숨겼다. 그는 우물 속에 드리워진 등나무의 뿌리를 부여잡았는데, 우물의 네 벽에는 네 마리의 독사가 있고, 우물의 바닥에는 독룡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그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흰쥐와 검은 쥐가 갉아 먹기 시작했다. 나그네가 체념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데, 꿀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활아먹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바로 그 나그네와 같은 처지임을 깨달았다. 입을 벌리고 있는 ‘죽음’의 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삶’의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느닷없이 떨어지고 있는 ‘꿀’을 핥고 있는데, 도무지 왜 자신이 그러한 고통에 빠졌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 그는 그 당시 자신에게 꿀방울은 가족과 글쓰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용’과 ‘쥐’를 바라보고 나자 더 이상 그 꿀이 위로를 주지 않았고, 그동안 그것이 주었던 기쁨조차도 오히려 기만이라고만 느껴졌다.

종합해 보자면, 톨스토이가 도달한 심연과 그 앞에서 느낀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가 지닌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짐승도 신도 아닌 그 ‘중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제약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제약은 톨스토이처럼 유신론적 입장에서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적 입장을 견지하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 그리고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나그네의 비유에서도 발견되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실존적 조건이자 ‘한계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삶의 무의미병 극복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제한성

톨스토이가 겪은 소위 ‘삶의 무의미병’은 그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그는 곧바로 자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가 이 병에서 벗어나고자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했는지는 “아주 열심히, 임종을 앞둔 사람이 구원을 바라듯 밤낮 가리지 않고 고통을 견디며 집요하게 찾았다”⁷⁾라는 표현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몸부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었을까? 시겔은 톨스토이가 삶의 무의미병을 극복하려 노력했던 그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고찰했다.⁸⁾ 이를 요약하자면, 가장 먼저, 톨스토이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단지 막연하며 낯설고 모호하게만 느껴졌던 1단계, 그 질문을 삶의 부분적인 영역으로 ‘초점화’해서 들여다보았던 2단계⁹⁾, 그 질문을 ‘학문적’으로 통제하면서 ‘개별학문’들에서 답을 구했던 3단계, 그 질문에 대해 더 이상 개별학문적 답변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 개별학문들의 전제 그 자체를 의문시하는 ‘철학’의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시겔은 톨스토이처럼 무의미병을 통해 겪는 인간의 경험을 하이에커의 ‘현존재’에게서 드러나는 실존적 ‘불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심리치료가 “톨스토이의 불안의 깊이와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¹⁰⁾고 비판했다. 톨스토이가 겪은 무의미

7) 『참회록』, 39쪽.

8) S. Segal, 「의미 위기: 철학상담과 심리치료」, Rahav, L. & Tillmans, M. V.,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앞의 책, 147~150쪽.

9)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그의 무의미병이 소위 오늘날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작가로서의 ‘일’, 가족 안에서의 ‘사랑’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자기실현’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10) S. Segal, 앞의 글, 150쪽.

의 위기는 욕구, 결핍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기존의 심리치료로 치료할 수 없으며, 이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망각’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톨스토이의 불안은 오히려 존재의 의미를 묻도록 촉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식들과 세계에 대한 가정, 즉 그 각각의 근본 전제를 의문시하는 ‘해체(destruction)’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비록 톨스토이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철학과 형이상학에 의한 답변을 거부했지만, 시겔은 오히려 톨스토이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가정들을 계속 의심해가는 네 단계의 과정 자체가 다름 아닌 하이데거의 ‘해체’를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제반의 심리치료를 통해서 병리화된 징후로 포착될 수 없는 ‘철학적’ 과정이며, 톨스토이는 스스로 이 과정을 감당했지만 향후 상담자로서의 철학자가 담당하게 될 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¹¹⁾

이와 같이 볼 때, 시겔이 톨스토이의 무의미병으로부터의 회복과정을 하이데거의 ‘해체’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과정이라고 해석한 것은 매우 흥미롭지만, 이는 단지 톨스토이의 자기성찰에 드러난 도입 부분과 중간 과정까지의 해명에 그칠 뿐, 그가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끊임없는 사유를 계속해나갔던 가장 핵심적인 단계를 모두 통틀어서 해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시겔과 함께 무의미병의 시작을 ‘불안’으로, 그리고 앞서 살펴본 네 단계의 사유 과정을 ‘해체’로 ‘철학적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톨스토이의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의 자기성찰에 드러난 사유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제한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임스는 톨스토이가 겪은 무의미병을 우울증이라고 보았고,

11) S. Segal, 앞의 글, 171쪽.

그 특성을 둘로 나누었다. “첫째, 우울증은 모든 삶의 가치에 대한 수동적 욕구상실, 즉 무쾌감증의 두드러진 사례이다. 둘째, 그 결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했던 변화되고 동떨어진 관점이 어떻게 톨스토이의 지성을 자극하여 괴롭고 예리한 물음과 철학적 위안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유도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¹²⁾ 그런데 제임스는 이러한 톨스토이의 우울증이 ‘예수를 자아내는 분위기에서 빚어진 종교적 우울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볼 때, 톨스토이가 무의미를 극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 시겔이나 제임스처럼 ‘철학’이나 ‘신학’이나 혹은 ‘이성’이나 ‘신앙’이나의 양자택일의 환원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¹³⁾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점을 단순화시켜서 명료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실제 삶의 국면에서 많은 이가 철학과 신앙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계속 사유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단선적으로 다루거나, 그 과정에서 빈번하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 버리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톨스토이가 ‘철학’의 단계를 넘어서서 ‘삶의 의미’에

12) W. James,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옮김, 한길사, 2022, 216~217쪽.

13)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김선희는 윌리엄 제임스가 톨스토이의 무의미병을 ‘종교적 우울증’이라고 규정한 것을 반박하며, 그것은 ‘일종의 철학적 우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편으로 그 철학적 우울을 다룬 시겔의 시도에 동의하지만, 그 ‘철학적’ 단계에 이르는 과정, 즉 하이데거식 해석을 통한 ‘해체’의 과정이 다름 아닌 ‘실제로 비판적 사고과정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자 “이성의 한계 논증”(김선희,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타난 의미의 위기에 대한 철학상담」, 『철학 실천과 상담』, 1(2010), 215쪽)이라고 의견을 달리했다. 물론 톨스토이의 의미탐색에 드러난 ‘철학적’ 과정을 하이데거식의 ‘해체적 사유’나 아니면 “비판적 사고”이자 “논증”이라는 그 철학적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시겔과 김선희는 모두 톨스토이가 시도한 삶의 총체적 위기 극복과정이 ‘철학적’이라고 해석한 데에는 일치한다. 이 둘은 이미 ‘철학’과 ‘신앙’을 양분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답은 ‘신앙’에 그리고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은 ‘철학’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대한 질문의 답을 ‘신앙’에서 찾았다고 말한 것이 『참회록』의 9장인데, 『참회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6장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톨스토이가 처한 삶의 위기로부터 그의 극복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주로 『참회록』의 9장까지만 집중하고 있으며, 나아가 ‘철학’이나 ‘신학’이나, 혹은 ‘이성’이나 ‘신앙’이나의 양자택일을 전제로 하면서 단지 ‘철학적’ 단계를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톨스토이가 ‘신앙’의 답을 찾고 나서도 계속되는 의미탐색의 과정은 『참회록』의 독특성이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의 단계와 대비해 볼 때, 또 다른 차원의 사유, 즉 철학과 신앙의 ‘사이’를 오가는 역동적 차원을 담고 있다. 따라서 톨스토이의 『참회록』 텍스트를 전거로 좀 더 촘촘하게 파고 들어가 그 핵심단계를 톨스토이가 토로한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해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철학과 신학, 이성과 신앙 ‘사이’에 놓인 톨스토이의 변민과 그의 사유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III. 이성과 신앙의 변증법적 사유와 주체적 실천을 통한 삶의 의미탐색

1. 이성과 신앙, 유한과 무한의 사이에 놓인 ‘모순을 사유하기’

앞서 우리는 톨스토이가 무의미병에 빠져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구해나가는 과정을 시걸의 네 단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왔다. 그런데 과연 4단계, 즉 ‘철학’의 단계를 넘어서서 ‘신앙’에서

답을 찾은 것으로 그의 의미탐색 과정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톨스토이가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신앙’, ‘신의 법칙에 따라서’라고 제시한 것이 『참회록』의 9장인데, 그는 저술을 멈추지 않고 16장까지 계속 이어갔다. 그렇다면 그다음에도 계속되는 그의 자기성찰에 드러난 사유의 과정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먼저 시걸의 네 번째 단계에서 톨스토이가 탐구했던 ‘철학’은 소위 쇼펜하우어가 ‘교수들의 철학’이라고 비판했던 강단 철학이 아니라, 오늘날 다소 ‘사변적’으로 보일지라도 톨스토이가 보기에 삶과의 연관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 ‘진정한’ 철학, 즉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철학”¹⁴⁾이었다. 그는 소크라테스, 쇼펜하우어, 솔로몬, 붓다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는데, 철학자가 두 명이고, 명망 있는 종교인이 두 명인 점도 매우 흥미롭다. 철학자는 고대와 현대, 종교인은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대표한다는 것도 인간 역사에서의 통시성과 공시성을 두루 갖춘 지성적 성찰의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톨스토이가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들을 통해서 얻은 대답도 모두 한결같이 자신이 도달한 ‘삶의 무의미’와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철학’의 단계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절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절망이 증폭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얻은 위로가 한 가지 있기는 하다. 자신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이상한 정신착란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처럼 맞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대한 현인들이 도달했던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다른 방식의 일환으로 그는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이웃들의 ‘실

14) 『참회록』, 52쪽.

생활'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이 병을 벗어날 실마리를 찾고자 시도했다.¹⁵⁾ 그러면서도 톨스토이는 역겹고 괴로운 삶의 무의미 속에서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한탄하면서 '사유'를 계속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단계를 넘어서 그 이후에도 그가 계속 '사유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 핵심단계들을 파고 들어가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기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각'이 있었고, 자신의 '판단의 진실성'에 대한 어렴풋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계속되는 회의로부터 계속 사유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그는 자신이 처한 '모순적 딜레마'를 발견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나의 결론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확인해 주었던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논증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문제 제기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리로는 충분히 납득했지만 뭔가 부족했다. 아무리 추론해보아도 이성의 판단에 따르는 귀결, 즉 자살은 할 수 없었다.¹⁶⁾

톨스토이는 이성적 판단에 따른 추론을 통해서만 자살이라는 결론에 이르지만, 더 이상 이성에 따르지 않는 '삶의 의식'이라는 또 다른 힘

15)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관찰한 결과, 대략 4가지의 길이 있다고 보았다. 대략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어리거나 우매한 남녀들이 걷는 '무지의 길'이다. 두 번째는 앞선 '안수정등'의 비유에서처럼 용과 쥐를 외면하고 그저 꿀을 실컷 빨는 '쾌락주의자의 길'이다. 톨스토이는 자기 계층의 대다수가 이 길을 따른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삶의 무의미를 깨닫고 나서 힘과 정력을 지니고 '삶의 파괴에 이르는 길'이다.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역시도 따라 걷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었다. 네 번째는 삶의 무의미를 알지만, 자신처럼 이성적으로 행동할 용기가 없어서 우유부단한 채 사는 '나약함의 길'이다. (『참회록』, 62-66쪽)

16) 『참회록』, 71쪽.

의 작용을 느끼면서 이 힘이 “절망에서 구해주면서 이성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¹⁷⁾고까지 주장했다. 그리하여 학자나 현자에 의한 이성 에 기초한 지식은 삶의 의미를 부정하지만, 무수한 대중, 전 인류는 이성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 즉 신앙에 따라 삶의 의미를 긍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도달한 모순적 처지는 다음과 같다.

나의 처지는 끔찍했다. 이성에 기초한 지식의 길에서는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신앙 속에서는 삶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게 이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성에 기초한 지식에 따르자면 삶은 악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살아왔고 살고 있다. 나 또한 삶이 무의미하고 악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으면서도 도리없이 살아왔다. 신앙에 따라 삶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이성을,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요구하는 이성 자체를 부정해야 했다.¹⁸⁾

이와 같은 처지에서 톨스토이는 과연 ‘삶의 무의미병’이 놓여 있는 이성과 신앙의 모순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는 이성에 기초한 지식의 추론 과정을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그 과정이 옳았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의 잘못, 즉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유했던 것”¹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자신이 제기한 질문, 즉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마침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제기했다. “환영처럼 소멸되는 삶에서 참되고 불멸하는 것은 무엇

17) 『참회록』, 72쪽.

18) 『참회록』, 75쪽.

19) 『참회록』, 76쪽.

이며 이 무한한 세계에서 나라는 유한한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²⁰⁾

톨스토이는 자신이 이전에 지나온 의미탐색의 단계들에서 어떠한 대답에도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유한과 무한의 사이에 놓인 요구’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통찰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성만으로는 답할 수 없었던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무한에 대한 유한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단순히 철학적인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주는 궁극적인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떤 질문을 제기해도 답은 같았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답: 신의 법칙에 따라서. 나의 삶에 참된 뭔가가 있는가? 대답: 영원한 고통 또는 영원한 행복. 죽음도 파괴하지 못하는 의미란 어떤 것인가? 대답: 무한한 신과의 합일, 즉 천국.²¹⁾

그런데 톨스토이는 ‘신앙’이 이성에 기초하지 않은 ‘또 다른 지식’이라고 보았다. 비록 불합리하더라도 바로 그 신앙만이 유한한 인간 존재에게 무한한 의미, 즉 “고통과 상실과 죽음도 파괴하지 못하는 의미”²²⁾를 부여하며 이로써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이 되고, 이는 인간에게 자살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모순을 해결하고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아주 필요하고 소중한 다”²³⁾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는 톨스토이의 의미탐색을 위한 핵심단계에서

20) 『참회록』, 76~77쪽.

21) 『참회록』, 79쪽.

22) 『참회록』, 80쪽.

23) 『참회록』, 83쪽.

그의 자기 이해가 변화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는 “나는 무엇인가? 무한의 일부다.”²⁴⁾라고 말하면서 유한과 무한이 함께 결합된 형태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유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동일시하는 논리적 차원만으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톨스토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유한성의 의미와 그 한계를 함께 지닌 ‘인류’라는 공동체에 시선을 돌려서 그 안에 자기 개인적인 삶의 의미가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유한자로서의 개별자 ‘인간’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동일한 존재 조건을 지닌 다른 개별 인간들의 공동체와 연대를 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타인들의 삶에도 눈을 돌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2. 이성적 논증을 넘어서서 ‘참된’ 신앙을 ‘주체적으로 실천’하기

이제 무한의 일부이자 유한적 존재자라는 모순적 존재의 위치에서 신앙적 지식을 발견한 톨스토이는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았을까? 그의 의미탐색은 인류의 심오한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신앙’이 주는 답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성에 기초한 논증²⁵⁾을 통하지 않을 경우, 그는 어떻게

24) 『참회록』, 82쪽.

25) “나는 우리의 논증이 틀니가 맞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마법의 고리 속에서 헛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훌륭한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0=0일 뿐이므로 분명 우리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참회록』, 84쪽) 톨스토이가 이처럼 이성적 논증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논의한 삶의 위기극복을 단순히 ‘비판적 사고’나 ‘논증’이라는 철학적 차원에 한정해서 볼 수 없음을 확인 알 수 있다.

게 그 의미탐색의 단계를 계속 이어갔을까?

가장 먼저 그는 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은 채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두 부류의 신앙인에 대한 탐구를 이어갔다. 우선 첫째로 그는 자신과 같은 계층의 신앙인들, 즉 학자들, 정교의 신학자들, 장로들, 진보적인 신학자들, 새로운 종파의 그리스도교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무엇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지 끈질기게 캐물었다. 그런데 그는 이들과 사귀면서 오히려 자신을 신앙으로 이끌어 온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의 교리에 대한 설명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교리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었고, 그러한 그들의 생활은 자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 즉 그 기만적 행태에 대해 깊은 절망과 경멸을 느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자신이 찾는 참된 의미의 신앙이 아니라 그저 ‘쾌락주의적 위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로 톨스토이가 주목했던 신앙인들은 “가난하고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순례자들, 수도사들, 구교도들, 농부들”²⁶⁾이었는데, 그는 이들의 신앙과 삶의 연관성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미신이 섞인 그리스도교 진리와 가르침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노동을 주로 하는 이 민중들의 미신은 오히려 그들의 생활에 매우 밀착되어서 필수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들의 생활은 신앙의 지식이 제공하는 ‘삶의 의미’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톨스토이는 그들을 관찰할수록 그들의 생활과 신앙은 결코 뗄 수 없으며, 신앙만

26) 『참회록』, 88쪽.

이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데, 그들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을 탐구함으로써 톨스토이는 커다란 내면의 전환을 맞이했다. “노동을 하며 스스로 삶을 창조하는 민중의 행위야말로 참된 것”²⁷⁾이고 이러한 삶에 부여된 의미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이유가 자신의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생충과 같은 생활’, 즉 “야비한 욕정의 만족을 좇던 쾌락주의적 생활” 때문이었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겪은 무의미병은 모든 인간, 인류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생활을 했던 자신에 관한 한 제한적으로 해당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의미병에 빠진 ‘기생충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톨스토이는 마치 칸트가 ‘순수이성’에 비해 ‘실천이성’의 우위와 그 중요성을 역설하듯이, 논증적 차원에서는 포기했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실천적 ‘이성’과 ‘의지’의 중요성을 포착했다. 그는 자신의 기만적인 생활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염두에 두지 않도록 성찰할 수 있는 ‘이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나만이 아닌 ‘인류 공동체의 생활’과의 결속을 널리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모든 인간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의미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의 생활은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지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 의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²⁸⁾

27) 『참회록』, 90쪽.

28)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톨스토이가 이율배반을 넘어서는 칸트의 ‘실천이성’이 지닌 중요성을

톨스토이는 땀 흘려 부지런히 노동하는 평범한 민중의 생활이 참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신의 특권적인 생활, 기생충 같은 생활을 벗어나 참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 “참된 인류가 삶에 부여한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며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²⁹⁾이야말로 무의미병을 벗어나는 첩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우리는 그저 태생적으로 ‘민중’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톨스토이가 주목한 점은 그들이 ‘스스로’ 삶을 창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즉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된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³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역동적 존재’의 통합된 경험을 통한 치유와 ‘철학적 숙고’의 개방성

1. ‘역동적 존재’의 통합된 경험을 통한 치유

앞서 우리는 톨스토이가 시도한 삶의 의미탐색을 위한 핵심단계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이성적 명령에 대해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참회록』, 98쪽.

30)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철학상담의 창시자인 아헨바흐는 자신의 철학실천, 즉 ‘철학함’을 통해 의도하는 바를 노발리스(Novalis)의 격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철학함은 의기소침을 벗어나는 것 - 생기있게 하는 것이다.(Philosophistisiren ist dephlegmatisieren - Vivificiren.)”(Novalis, *Werke, Tagebücher und Briefe*. (H.-J. Mühl & R. Samue, Eds.) (Vol. 2).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8, p. 317) 그는 이 문구를 철학상담의 모토로 삼으면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철학함은 도약하는 것을 돕고, 활기차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hilosophieren heie ‘Auf die Sprünge helfen und beleben’)” (Achenbach, G. B., “Der Philosoph als Praktiker”, *Zur Einführung der Philosophischen Praxis*. Verlag für Philosophie Dinter, 2010, p. 132)

살펴보았다. 즉, 그는 이성과 신앙의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사유’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성에 기초한 논증적 지식을 벗어나 실제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신앙에 집중하는 자기성찰의 여정은 이로써 종결되었을까?

톨스토이는 민중의 참된 생활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일 년 동안 여전히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상태를 주시하고 관찰하면서 계속 사유를 전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괴로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 가운데 그는 신에 대한 자신의 탐구가 관찰과 사유에서의 이성이 아니라 뭔가 놓여나지 못한 일종의 감정의 작용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감정이란 고립무원의 두려움, 낯선 것들에 둘러싸인 고독감, 나아가 그 뭔가에 도움을 바라는 심정”³¹⁾이었다.

톨스토이가 ‘신의 법칙에 따라서’라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뒤에도 또다시 ‘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고독감 등의 압도적 감정에 의해 또다시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은 애초에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덮쳐 왔던 ‘불안’과 같은 감정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지니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이미 ‘답’을 다 알고 또다시 절망에 빠진 채 강렬한 자살 충동에까지 휩싸일 수 있단 말인가?³²⁾

31) 『참회록』, 99쪽.

32)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겔이 중요시했던 ‘불안’보다 하이데거의 ‘염려’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염려는 충동처럼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특성도 지니고 있지만, 결핍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두 계기를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이데거와 연관된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피터 하, 「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의 ‘염려’(Sorge)와 윤리학의 가능성」, 『현상학과 현대철학』, 19(2002), 188~190쪽.

여기서 우리는 톨스토이의 자기성찰이 단순한 이성의 포기, 혹은 신앙으로의 비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그 사이에서 느끼는 ‘역동적인 존재의 경험’³³⁾을 통한 통합의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특히 톨스토이가 느낀 ‘신’에 대한 감정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의 정답을 단순히 인식론적으로 발견했다는 것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매우 개별적이고도 실존적인 경험이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 정서라고 인식되고 그에 따라 외부에서 객관적인 처방을 내릴 수 없는 차원이며, 존재의 깊은 상태에 달라붙어서 이미 들어앉아 있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분(Stimmung)’³⁴⁾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처럼 쉽게 해소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명료하게 인식될 수 없으면서도 자신에게 들이닥쳐서 떼어낼 수 없는 ‘내던져짐(Geworfenheit)’의 존재 상태³⁵⁾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떤 이해를 지니고 접근해야 할까?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의 실존은 어떠한 인식론적 규정 이전의 ‘피투성(被投性, Geworfenheit)’만이 아니라 이와 불가분으로 연결된 ‘기투(企投, Entwurf)’라는 두 계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인간은

33) 체명은 이러한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영성’, ‘종교성’이라고 보았고, 이처럼 더 높은 존재와 연결된 느낌, 더 큰 힘을 지닌 존재의 지지를 받은 경험이야말로 중요한 의미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단순히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려우며, 이는 종교적 사회화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성의 차원에서 반드시 초월적 존재를 경험하기보다는 ‘조용함과 내면의 고요 추구하기’, ‘자신에게 다시 집중하기’ 등을 통해서 순례 속소를 찾거나 침묵 중에 길을 걷는 형태로도 경험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K. Ceming, 『삶의 의미』, 이승희 옮김, 분도출판사, 2025, 65~74쪽.

34)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분은 아주 깊은 존재의 상태를 말하며, 이는 “어떤 심적 상태를 발견하는 그런 어떤 것과는 거리가 멀다.”(M. Heidegger,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1972, p. 136)고 할 수 있다.

35) 하이데거는 이러한 내던져짐의 존재 상태에서 “처해있음(Befindlichkeit)은 회피하면서 돌아서는 방식으로 현존재를 개시한다고 주장했다.(loc.cit.)

비록 어찌할 수 없는 피투된 자신의 존재 속에서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그로부터 고군분투하고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기획투사하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실존’은 두 계기 중에서 그 어느 하나로만 환원될 수 없는, 즉 ‘피투된 기투’(geworfener Entwurf)(Heidegger, 1972, p. 148)라는 이중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하이데거가 말한 두 계기의 ‘실존’을 통해 톨스토이의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우리는 톨스토이가 이러한 두 계기를 어떻게 통합하면서 무의미병으로부터 치유되는지 좀 더 가까이서 이해해볼 수 있다. 톨스토이는 한편으로 칸트와 쇼펜하우어를 따라서 신 존재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머리로 이해하고 그 논거들을 검토하고 반박해 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신의 존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그는 과학적 인식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원인으로서의 신이지만, 그럼에도 궁극적 원인으로서는 현존하는 신의 힘을 뭔가 자기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며 약동하는 기쁨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살아나는 듯한 환희의 기분은 곧바로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으로 빠지곤 했는데, 이처럼 삶으로의 환희와 죽음으로 치닫는 절망을 오가며 무려 3년 동안이나 신을 찾는 작업은 계속되었다.

이처럼 되풀이되는 희망과 절망의 변주 속에서 톨스토이는 되살아나기도 하고 다시금 자살 충동에 빠지기도 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마침내 신에 대한 ‘빛’의 체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그는 비로소 자살 충동에서 벗어났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나는 살아 있지 않다. 신을 찾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벌써 자살했을 것이다. 오직 신을 느

끼고 찾을 때만 나는 살아 있는 것이다. 대체 나는 또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바로 신이다.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것. 신을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같다. 신은 곧 생명이다.

‘신을 찾으며 살아라, 그러면 신이 없는 삶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자 내 안과 주변의 모든 것이 아주 밝게 빛났고, 이 빛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³⁶⁾

이와 같이 볼 때, 톨스토이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의 답을 다른 아닌 ‘신앙’, 즉 ‘신의 법칙에 따라서’라고 찾았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내면의 깊은 역동적 존재로서 신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면서 계속 탐구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더욱이 그 ‘신’의 존재를 찾는 그의 감정은 긍정적인 희망과 부정적인 절망의 역동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빛’을 체험하면서, 즉 ‘신에 대한 삶과 삶’이 일치되는 ‘생명’으로서의 신을 경험하면서 받아들이고 ‘이해’³⁷⁾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역동적 존재로서의 ‘통합’된 신을 경험함으로써 내면의 대전환을 맞이했으며, 결국 무의미병에서 치유되었다.

톨스토이는 이처럼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던 ‘피투된’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신을 꾸준히 탐구했고, 삶과 일치되는 삶 속에서 ‘생명’의 신을 통합적으로 경험했으며, 그 이후에도 ‘기획투사’를 통해

36) 『참회록』, 103쪽.

37) 현존재의 가능성을 ‘이해’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아닌 ‘이해’와 ‘기획투사’의 실존론적 연관성 때문이다. “이해는 그 자체로 우리가 기획투사라고 명명하는 실존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M. Heidegger, *op.cit.*, p. 145) 하이데거가 기획투사를 언급할 때, 이는 단순히 어떤 미래를 향해 고안된 계획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가 근원적으로 미래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피터 하, 앞의 글, 184쪽)한다.

계속해서 신을 찾으며 살기로 결단을 내렸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의미 탐색을 위한 톨스토이의 자기성찰이 그의 삶 전체를 꿰뚫는 고군분투였으며, 이를 통해 그가 마침내 무의미에서 빠졌던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의 전환을 실존적으로 성취함으로써, 즉, ‘지금-여기’³⁸⁾에서 일어나는 그 깊은 존재와 통합되는 실존적 경험을 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톨스토이의 ‘삶의 의미’는 계속되는 ‘피투된 기투’의 역동성 속에서 재해석되고 해명되는 ‘철학적 숙고’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신앙적 지식에 대한 이성의 한계 자각과 ‘철학적 숙고’의 개방성

톨스토이가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은 결코 이론적 논의를 통한 논증이나 논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살 외에는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내면의 정신적 대위기에 직면해서 펼치는 끊임없는 내적 역동을 동반한 ‘실존적 투쟁’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관건이 된 것은 ‘참된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의심하고 분별하며, 모순 속에서도 계속되는 변증법적 사유가 불가피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의 ‘철학’을 의미하는 ‘비판적 사고’의 논증적 추론 과정이라거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성을 포기한 ‘신학’에 해당하는 ‘맹목적 신앙’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의 한계를 성찰하

38) 알론은 심리치료가 환자와 ‘지금-여기’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치료동맹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다. (I. D. Yalom, 『보다 냉정하게 보다 용기 있게』, 이혜성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0, 244~264쪽)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김수배는 알론이 강조한 바 있는 ‘지금-여기’를 활성화하는 기법을 철학상담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김수배, 「철학상담의 관점에서 본 어빈 알론(Irvin D. Yalom)의 ‘지금-여기’ 활성화 기법」, 『철학논집』, 61(2020), 9~35쪽.

는 이성, 그리고 ‘삶의 의미’의 놓인 유한과 무한의 사이에서 신앙의 맹목성에 빠지지 않도록 성찰하는 이성은 과연 어떤 이성이며, 이는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³⁹⁾

먼저 톨스토이는 ‘신’이 신앙과 이성 모두의 근원이라고 여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펼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앙의 지식은 이성을 지닌 인류와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근원에서 발생한다. 이 근원은 신이며, 신은 인간의 육체와 이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나의 육체가 신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에게 전해졌듯 이성과 삶에 대한 깨달음 또한 신에게서 이어받은 것이므로 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어느 단계도 허위일 수 없다. 사람들이 진실로 믿는 것은 모두 진리여야 한다. 신앙의 지식은 아무리 다양하게 표현되더라도 거짓일 수 없고, 만일 거짓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⁴⁰⁾

톨스토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한 ‘신’은 오로지 신앙적 지식만을 주관하는 존재는 아니다. 물론 신앙의 지식이 자기가 지닌 유한한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므로 자신의 인식론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는 이성을 전적으로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적 진리를 무리하게 무분별적으로 옹호하려 하지는 않았다.

39) 여기서 우리는 야스퍼스가 말한 ‘이성의 본성’을 통해 톨스토이의 사유가 지닌 의미를 밝혀 볼 수 있다. “이성의 본성은 지적 궤변의 상대주의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파괴의 의미가 아니라 무한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를 열어놓는 개방성이다. 이성은 순수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회의를 요청한다. 오성적 사고는 일정한 근거를 갖지 못할 때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러나 이성이 실존에 근거할 때에는 허무주의로부터 해방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성은 오성적 사고를 매개로 하여 세계 존재의 구체성, 이율배반, 돌파와 분열의 심연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초월자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존하기 때문이다.”(K. Jaspers, 『철학적 신앙』, 신옥희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50쪽)

40) 『참회록』, 110쪽.

뭔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에게 내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리를 파고들수록, 진리를 더욱 진지하게 삶의 기초로 삼을수록 이 충돌은 더욱 견디기 어려워졌고,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자신을 속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더욱 뚜렷해졌다.⁴¹⁾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설명될 수 없는 까닭은 지성의 요구들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이 요구들은 어디까지나 옳고 그것들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지성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될 수 없는 모든 것에서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이성의 필요성을 보기 위해 나는 깨닫고 싶다.⁴²⁾

여기서 톨스토이는 이성을 뛰어넘어 설명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성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 진실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그가 말하는 진리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톨스토이의 진리 추구에서 참과 거짓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그가 찾고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 참과 거짓의 기준은 인식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실제 삶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그 여부에 있었다. 그리고 후자를 사유하며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이성만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으며, 톨스토이의 예에서처럼, 그의 ‘심사숙고하는 태도’에 잘 드러나 있다.

41) 『참회록』, 121쪽.

42) 『참회록』, 130쪽.

내 앞에 펼쳐진 삶의 의미라는 하나의 얇은 신앙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거나, 적어도 떼어놓기 어려운 만큼 연결되어 있다. 낡고 굳은 나의 지성에는 아무리 기이하게 여겨져도 그 얇만이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다. 학문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얇을 얻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주의깊게 검토해야 한다.⁴³⁾

톨스토이에게 ‘삶의 의미’를 위한 신앙의 지식은 결코 아무런 의문을 허용하지 않는 맹목적 믿음, 초월성을 강조하는 데에 있지 않고, 비록 인간의 조건 즉 유한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신중하고 주의 깊은’ 태도로 끊임없는 검토를 통해서, 즉 ‘철학적 자기성찰’⁴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성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거나 혹은 지성을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의 마무리는 ‘삶의 의미탐색’이 단순히 부분적으로 초점화된 심리치료의 과학적이고 병리학적인 ‘처방’에 의한 치료, 나아가 ‘철학’이나 ‘신학’이나의 한 부분만을 배타적으로 결단 내리는 ‘정답’으로 종결될 수 없는, ‘지속적인 분별이 필요한 철학적 숙고의 과정’, 즉 ‘철학함’⁴⁵⁾의 과정임을 명료하게 보여

43) 『참회록』, 129쪽.

44) 이러한 맥락에서 구쫓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철학적 자기성찰은 더 높은 단계들의 이론, 즉 메타이론인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문들에서 일반적이며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자신의 과정과 수행을 방법론적으로 재숙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U. Guzzoni, *Philosophieren: Wider Theorie und Begründungszwang*, Verlag Karl Alber, 2023, p. 10) 나아가 그녀는 개별적인 철학자들이 철학함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그 자신이 스스로 제기한 과제들에 대해 이전에 사유한 자들에게서 주어진 근거와 답들을 새롭게 질문으로 제기하며 도전하는 사유, 즉 심사숙고하는 사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45) “깨닫지 않은 삶(ho anexetastos bios)은 사람에게는 살 가치가 없다는 것”(Platon, 『플라톤의 네 대화편: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박종현 옮김, 서광사, 2003, 176쪽)이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이념을 이어받고 있는 철학상담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돕고자 시작되었다. 오늘날 철학상담의 새로운

준다.

신앙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속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 또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진리와 거짓을 찾아내 둘을 구별해야 한다. 나는 바로 이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⁴⁶⁾

톨스토이가 ‘신’에게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서, 그 신앙적 지식을 삶의 의미에 대한 참된, 실천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는 그 지식에 대해 계속되는 신중한 이성적 검토를 다짐하면서 ‘열린 숙고’⁴⁷⁾의 태도로 『참회록』을 끝마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열린 숙고를 홀로 또는 함께 나누는 기회가 허용되는 대화의 자리에 ‘철학적 치유’의 실천 가능성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출발을 알린 창시자 아헨바흐는 철학자의 사명이 단순히 ‘사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또한 사려 깊게 되는 것”,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G. B. Achenbach, 『철학상담의 철학』, 노성숙 옮김, 학지사, 2024, 8쪽)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철학상담이 단순히 ‘삶의 기예(Lebenskunst)’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영리함 그 이상의 지혜로운 돌봄을 의미하며, ‘삶의 숙달(Lebenskönnerschaft)’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의 기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삶을 ‘주의 깊고 신중한 태도’로 심사숙고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바로 톨스토이가 이러한 ‘삶의 숙달’이라는 태도를 지녔기에 ‘철학적 숙고’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헨바흐가 말한 삶의 기예와 삶의 숙달의 상세한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G. B. Achenbach, 위의 책, 52쪽.

46) 『참회록』, 130쪽.

47)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명상’에서도 깊은 사유, 숙고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숙고 명상’이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거하여 늘 깨어 살펴보는 것”(최훈동, 『깨달음의 길 숙고 명상: 알아차림 너머 삶을 바꾸는 내면의 지혜』, 담앤북스, 2022, 69쪽)을 의미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톨스토이 『참회록』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가 생애의 중년기인 50세 즈음 정신적 대위기에서 직면했던 자칭 ‘무의미병’의 양상을 살펴본 뒤, 그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상세히 고찰해 보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끈질기게 부여잡고 한편으로 이론적 차원에서 온갖 개별학문에서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철저히 짚어보면서 철학에 이르기까지 살살이 탐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전문가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중요하다 여겨지는 종교인들이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어떤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꾸준히 검토해 나갔다. 그리하여 톨스토이는 “노동을 하며 스스로 삶을 창조하는 민중의 행위” 속에서 참된 신앙에 뿌리내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물론 그가 자신이 찾아 나선 ‘삶의 의미’에 대해 한편으로는 ‘신의 법칙에 따라서’라는 ‘이성적인 답변’을 얻기는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민중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신앙’을 단순히 모방하면서 살 수만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그는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자기성찰을 계속했다.

본 논문은 톨스토이의 『참회록』 텍스트에 기반하여 그의 의미탐색 과정 전반을 총괄하면서도, 특히 톨스토이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은 이후에 신앙과 이성의 ‘사이’에서 사유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과정, 즉 그 핵심단계들을 밝혀내는 데에 주력해 보았다. 삶의 의미탐색을 위한 그의 자기성찰은 답을 찾은 이후에도 ‘이성의 포기’ 혹은 ‘신앙으로의 비약’을 단순히 감행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성과 신앙

사이에 놓인 ‘변증법적 사유’와 참된 신앙을 ‘주체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를 통해서 계속 전개되었다.

그가 유신론자로서 ‘삶의 의미’에 대해 소위 ‘답’을 찾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철학적 숙고’를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참회록』에서 매우 상세하게 열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 중요성이 덜 주목된 바 있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자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철학이나 신학이나, 혹은 이성이나 신앙이나의 양분화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톨스토이의 고군분투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문적인 논리나 철학적 논증을 위해서는 하나의 입장으로 환원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이 좀 더 일관되고 명료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톨스토이가 실제 삶 속에서 신앙과 이성이 모순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기성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즉 그 사유의 긴장을 견디며 자기 주도적인 ‘숙고’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의 ‘무의미병’은 이론이나 논리의 명료성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과의 연관성, 즉 실천의 차원에서 모순과 함께 계속 사유하고 검토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이해되고, 역동적 존재의 경험을 통해서 그 균열이 통합됨으로 치유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철학적 숙고의 개방성을 실천하는 가운데 계속되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이 톨스토이가 보여 준 ‘삶의 의미탐색’ 과정이 담고 있는 역동적 존재의 경험과 꾸준히 열린 숙고의 실천이 지닌 치유적 함축성을 도출한 이유는 바로 톨스토이처럼 실제 삶에서의 실존적 갈등을 겪는 현대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많

은 사람이 신학과 철학의 이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론적 입장을 공부해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경험적 차원에서 유한한 한 인간으로서 신앙과 이성의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계속하면서 ‘삶의 의미탐색’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톨스토이처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모순 속에서 심사숙고하는 태도로 사유를 계속하고자 할 때, 한 인간으로서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는 실존적 차원에서의 근원적인 존재 경험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삶의 의미로 찾은 ‘신앙’을 주체적인 삶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그 방도를 꾸준히 모색하는 이들도 많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톨스토이가 비록 자신의 무의미 경험을 ‘병’이라고 규정했지만, 그 병의 독특성은 단순한 정신병이나 심리치료적 ‘병리학’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톨스토이와 유사한 위기에 처한 이들의 내적 고민과 갈등을 단순히 의료적 차원, 혹은 심리치료적 차원에서 ‘병리화’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심리치료, 철학, 종교 등 각 분야에 갇힌 전문성이나 배타성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진지한 관심과 접근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실존적 자각과 이를 ‘홀로’ 그리고 ‘함께’ 숙고하는 ‘과정’의 소중함도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톨스토이가 겪은 ‘무의미병’이 확산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러한 정신적 위기가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이에 대한 ‘철학적 숙고와 자유로운 대화’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T. J. Tolstoi, 『참회록』,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2022.

김선희,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타난 의미의 위기에 대한 철학상담」, 『철학 실천과 상담』, 1(2010), 197~220쪽.

김수배, 「철학상담의 관점에서 본 어빈 알롬(Irvin D. Yalom)의 '지금-여기' 활성화 기법」, 『철학논집』, 61(2020), 9~35쪽.

노성숙, 『심리치료와 철학상담』, 학지사, 2021.

최훈동, 『깨달음의 길 숙고명상: 알아차림너머 삶을 바꾸는 내면의 지혜』, 담앤북스, 2022

피터 하, 「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의 “염려”(Sorge)와 윤리학의 가능 근거」, 『현상학과 현대철학』, 19(2002), 165~191쪽.

Achenbach, G. B., 『철학상담의 철학』, 노성숙 옮김, 학지사, 2024.

Boss, M., 『정신분석과 현존재분석』, 이죽내 옮김, 하나의학사, 2003.

Ceming, K., 『삶의 의미』, 이승희 옮김, 분도출판사, 2025.

James, W.,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옮김, 한길사, 2022

Jaspers, K. 『철학적 신앙』, 신옥희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Josselson, L. A., 『어빈 D. 알롬의 심리치료와 인간의 조건』, 이혜성 옮김, 시그마프레스, 2008.

Minjuskovic, B., 「철학상담과 심리치료에 관한 성찰」, Rahav, L. & Tillmans, M. V.,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정재원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3, 119~142쪽.

Nietzsche, F.,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7.

Platon. 『플라톤의 네 대화편: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박종현 옮김, 서광사, 2003.

Segal, S., 「의미 위기: 철학상담과 심리치료」, Rahav, L. & Tillmans, M. V.,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정재원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3, 143~172쪽.

Yalom, I. D., 『보다 냉정하게 보다 용기 있게』, 이혜성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0.

Yalom, I. D. & Leszcz, M.,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제5판』, 최해림 · 장성숙 옮김, 하나의학사. 2008.

- Achenbach, G. B., “Der Philosoph als Praktiker”, *Zur Einführung der Philosophischen Praxis*, Verlag für Philosophie Dinter, 2010, pp. 129~136.
- Frankl, V. E.,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Meridian, 1988.
- Guzzoni, U., *Philosophieren: Wider Theorie und Begründungszwang*, Verlag Karl Alber, 2023.
- Heidegger, M.,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1972.
- Heidegger, M., *Zollikoner Seminare*, M. Boss(Hg.), Vittorio Klostermann, 1987.
- Novalis, *Werke, Tagebücher und Briefe*, H.-J. Mühl & R. Samue(Hg.) (Vol. 2).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8.
- Yalom, I. D., *Existential Psychotherapy*, Basic Books, 1980.

【국문초록】

본 논문은 톨스토이의 자서전적 서술이 돋보이는 『참회록』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가 50세 즈음 인생의 중년기에 직면한 정신적 대위기의 모습을 고찰한다. 이 글의 목적은 톨스토이 무의미병의 양상과 그 극복 경험을 단지 철학적 논증으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례에 드러난 ‘삶의 의미탐색’ 과정을 ‘철학자’의 눈과 귀로 경청하고 이해하면서 ‘무의미병’에 대한 자기성찰이 지닌 치유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먼저 II장에서는 톨스토이가 처한 총체적인 삶의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무의미’가 그에게 어떤 중병으로 경험되었고, 그가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노력이 기존의 연구에서 ‘철학’이나 ‘종교’냐의 이분법적인 배타성을 통해서 어떻게 환원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철학적’으로 해석되더라도 어떤 제한점을 지니고 논의되고 있는지를 밝혀본다.

III장에서는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의 고민이 집중적으로 놓여 있는 ‘삶의 의미탐색’의 핵심단계들에 천착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이 단계에 대해 톨스토이의 『참회록』 텍스트를 전거로 하여, 철학과 신학, 이성과 신앙 ‘사이’에 놓인 톨스토이의 번민과 그의 사유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밝혀낸다. 그리하여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의 ‘변증법적 사유하기’와 참된 신앙을 ‘주체적 삶으로 실천하기’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끝으로 IV장에서는 삶의 의미탐색을 위한 톨스토이의 자기성찰에 드러난 ‘역동적 존재’의 경험과 ‘철학적 숙고’가 지닌 치유적 함축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톨스토이는 단순한 이성의 포기, 혹은 신앙으로의 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역동적인 존재’로서의 신을 ‘통합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치유에 이르게 되며, 그 이후에도 ‘이성과 신앙’ 사이에서 ‘신중하고 주의 깊은’ 태도로 계속 숙고를 멈추지 않는다.

이와 같이하여 본 논문은 톨스토이가 삶의 무의미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상세히 밝혀냄으로써, 톨스토이처럼 실제 삶에서의 무의미병에 시달리며 실존적 갈등을 겪는 현대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오늘날 톨스토이가 겪은 ‘무의미병’이 확산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러한 정신적 위기가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이에 대한 ‘철학적 숙고와 자유로운 대화’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톨스토이, 삶의 의미, 무의미, 이성과 신앙, 자기성찰, 자기 치유, 철학적 숙고

【 ABSTRACT 】

How did Tolstoy search for meaning out of the meaninglessness of life?: Focusing on the philosophical deliberation revealed in the self-reflection of “*A Confession*”

Nho, Soung Suk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 Philosophical Counseling · Professor)

This paper examines Tolstoy's mental crisis, which he faced around the age of 50. It focuses on the text of “*A Confession*”, which features Tolstoy's autobiographical narrative. The paper's objective is not to prove Tolstoy's meaninglessness-illness or his experience of overcoming it with philosophical arguments. Instead,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healing through the self-reflection of “meaninglessness” in his case by listening to and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life” through the eyes and ears of a “philosopher”.

Chapter II thoroughly examines the crisis in Tolstoy's life and how he experienced “meaninglessness” as a serious illness, how his efforts to overcome the crisis have been reductively defined in existing research through the dichotomous exclusiveness of “philosophy” or “religion,” and the potential limitations in discussing it even when interpreted “philosophically.”

Chapter III delves into the core stages of the search for the meaning of life, where the focus is on Tolstoy's deepest inner concerns. These stages,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are explored in depth through Tolstoy's “*A Confession*,” highlighting Tolstoy's inner turmoil and thought process “between” philosophy and theology, or reason and faith. It is revealed that Tolstoy develops a dialectical thinking between reason and faith and the notion that practicing true faith is a subjective life.

Chapter IV considers the healing implications of Tolstoy's “experience of a

dynamic being” and the “philosophical deliberation” revealed in his self-reflection on the search for the meaning of life. Tolstoy’s approach is not based on abandoning reason or leaping into faith. Instead, he experiences God in unity as a “dynamic being,” and this heals him. Even after this epiphany, he continues to deliberate the correlation between “reason and faith” in a “prudent and careful” manner.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olstoy’s process for modern people who, like Tolstoy, suffer from existential conflicts and are plagued by the disease of meaninglessness in life. This paper discusses in detail how Tolstoy was able to escape the meaninglessness of life step by step. In today’s context, opportunities for “philosophical deliberation and free conversation” are vital for cultivating a “sensitivity to the meaning of life” in a preventive manner so that such a mental crises do not lead to self-harm or suicide.

Key words: Tolstoy, Meaning of Life, Meaninglessness, Reason and Faith, Self-reflection, Self-healing, Philosophical Deliberation

투고 접수: 2025. 03. 10.	심사 완료: 2025. 04. 11.	게재 결정: 2025. 04. 11.
----------------------	----------------------	----------------------